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내일 화요일은 경제 정보가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WSJ: 미 경제 성장 불구 양극화…서민 체감 경기는 냉랭
- Bloomberg: 행정부 독주에 의회, 물가 안정 힘 못쓴다
- Bloomberg: 미 여성 인력이 숙련 기술직 시장 뛰어든다

[미국 금융]
- CNBC: 미 국채 금리 관망세…중간선거·주요 지표 발표 앞두고
- Bloomberg: 미·이란 외교 협상 기대감에 증시·채권 상승
- Bloomberg: 백악관 경제 위원장, AI 투자 자금 조달 우려 일축

[중동 전쟁]
- Bloomberg: 이란 최고지도자, 이란 정부에 '종전 협상' 권한 위임

[오일]
- Bloomberg: 이란 최고지도자의 협상 허용에 석유·가스 가격 크게 감소

[주택]
- WSJ: 이란 최고지도자의 협상 허용에 석유·가스 가격 크게 감소

[KMI 공급망 브리핑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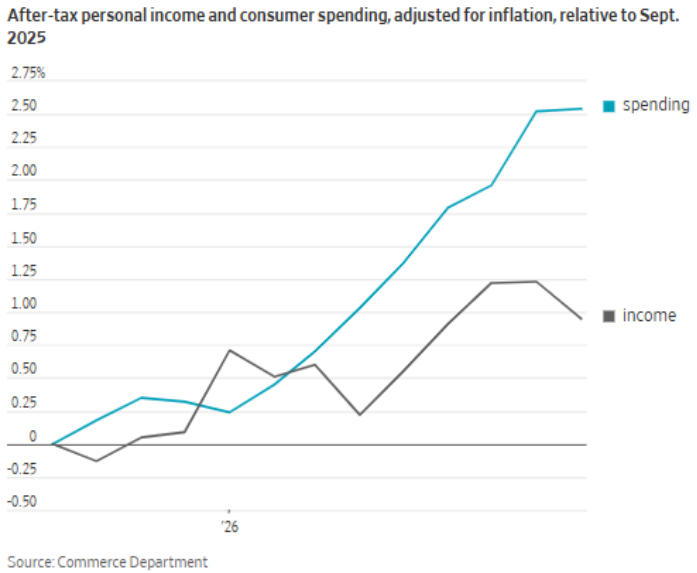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WSJ: The American Economy Rockets Ahead, but Doesn't Take Everyone With It

미 경제 성장 불구 양극화…서민 체감 경기는 냉랭

-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인공지능 투자 열풍과 견조한 소비 지출에 힘입어 연율 3.4%를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강력한 확장세를 보였다.
- 그러나 고물가와 높은 금리 부담으로 인해 시장의 결실은 서민 경제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.
- 올 들어 임금이 5.5% 올랐으나 같은 기간 물가도 5.4% 상승해 실질 소득 증가 효과를 대부분 상쇄했으며, WSJ 여론조사 응답자의 62%가 체감 경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.
- 전문가들은 미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 수혜가 특정 부문과 자산가 계층에만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.



기사

Bloomberg: The Midterms Won’t Fix What Ails Consumers
행정부 독주에 의회, 물가 안정 힘 못쓴다

- 물가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와 달리 의회가 체감 물가를 개선할 여지는 매우 적다. 관세 인상, 이란전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, 각종 지원금 지급 등

물가를 자극하는 핵심 정책들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권으로 단행되고 있기 때문이다.
- 유가와 직결된 이란전 억제나 관세 권한 축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가 이를 되돌리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. 차라리 법원의 판결이 더 강력한 변수로 꼽힌다.
- 선거 후 의회가 보조금 확대 협상에 나설 수 있으나, 이는 재정 적자를 늘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.

기사

Bloomberg: Companies Have a Solution for the Skilled Trade Shortage: More Women
미 여성 인력이 숙련 기술직 시장 뛰어든다

- 숙련 기술직(건설·정비·용접 등)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여성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.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설 및 정비·설치 분야의 여성 비율은 10년 전 2.9%에서 최근 4.4%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.
- 고소득과 신기술 도입으로 작업 환경이 첨단화되면서 여성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.
- 이에 발맞추어 기업들도 유급 출산휴가와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고 남성 중심적인 현장 문화를 개선하는 등 여성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CNBC: Treasury yields are mixed as oil prices tumble ahead of the midterms
미 국채 금리 관망세…중간선거·주요 지표 발표 앞두고

- 중간선거와 주요 경제 지표 발표, 실적 시즌을 앞두고 미 국채금리가 혼조세를 나타냈다.
- 유가 하락 속에 장기물 금리는 하락한 반면, 단기물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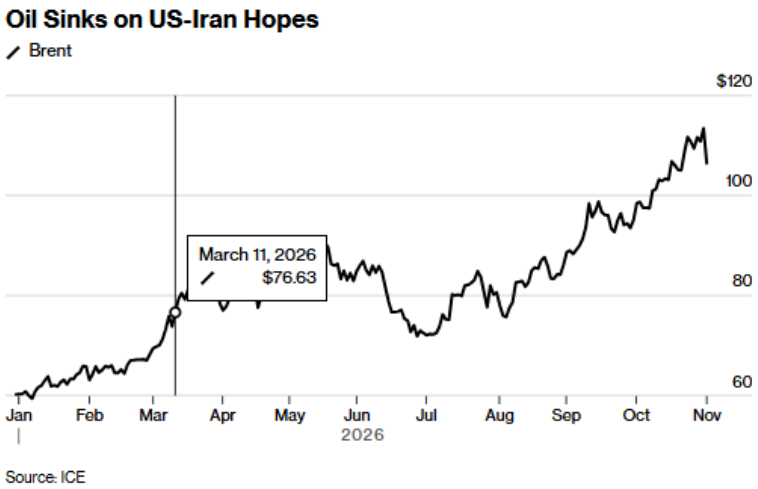
-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4베이시스포인트 이상 내린 4.884%, 30년물 금리는 5 베이시스포인트 이상 하락한 5.255%를 기록했다. 반면 통화정책 변화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1 베이시스 포인트 미만 상승하며 4.585%로 나타났다.

SYMBOL	COMPANY	YIELD	CHANGE
US10Y	U.S. 10 Year Treasury	4.884%	-0.045
US1M	U.S. 1 Month Treasury	3.971%	-0.005
US1Y	U.S. 1 Year Treasury	4.378%	+0.024
US2Y	U.S. 2 Year Treasury	4.575%	-0.006
US30Y	U.S. 30 Year Treasury	5.255%	-0.054
US3M	U.S. 3 Month Treasury	4.10%	+0.02
US6M	U.S. 6 Month Treasury	4.274%	+0.02

기사

Bloomberg: Stocks, Bonds Rise as Oil Tumbles on US-Iran Hopes
미·이란 외교 협상 기대감에 증시·채권 상승

- 미국과 이란의 외교적 해결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자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며 미국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.
-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가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장기 국채가 강세를 보였고, S&P500 지수는 0.7% 상승했다. 거대 기술주 지수는 0.8% 올랐으며, IPO를 앞둔 엔트로픽은 3분기 매출 1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.
- 반면 실적 발표를 앞둔 애플은 소폭 하락했다. 한편 10월 미 제조업 활동은 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생산 증가세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냈다.



기사

Bloomberg: White House’s Hassett Dismisses Concern Over Financing of AI
백악관 경제 위원장, AI 투자 자금 조달 우려 일축

- Kevin Hassett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(NEC) 위원장이 시장의 인공지능 투자 자금 조달 관련 우려를 일축하며 시스템 내 자본이 충분하다고 밝혔다.
- 그는 CNBC 인터뷰에서 "AI 분야는 자금 조달 생태계가 매우 잘 조성되어 있다 언급했다. 이는 최근 빅테크 기술주 급락으로 나스닥 지수가 지난 7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에 대한 답변이다.
- 그는 부채 부담이 큰 일부 기업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지만, 자금력을 갖춘 대형 기업들이 버티고 있어 시장 내 유동성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.

기사

[중동 전쟁]

Bloomberg: Iran’s Khamenei Gives Government Powers to Hold Talks on War

이란 최고지도자, 이란 정부에 '종전 협상' 권한 위임

- 이란의 최고 통치권자인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(Mojtaba Khamenei)가 정부에 종전 평화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하며 외교적 타결 가능성을 열었다.
- 이란의 권력 구조상 국가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, 대통령과 집행부는 최고지도자가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만 외교적 협상에 나설 수 있다.
- 이란 대통령은 "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, 최고지도자로부터 이에 관한 특정 권한을 부여받았다"고 밝혔다.
- 이번 발표로 유가 폭등세가 진정되며 브렌트유는 약 6% 급락한 배럴당 106달러 선에서 거래됐다.

기사

[오일]

Bloomberg: Oil Extends Drop as Iranian Supreme Leader Opens Way for Talks
이란 최고지도자의 협상 허용에 석유·가스 가격 크게 감소

- 미국과 이란이 중동 에너지 난을 해소할 대화 의사를 밝히며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약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다.
- 이란 최고지도자가 정부의 협상을 승인하고,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과의 대화를 우선 관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.
- 이에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는 7% 이상 폭락해 배럴당 97달러 선으로 내렸으며, 유럽 가스 선물도 9% 이상 급락했다.

기사

[주택]

WSJ: Home Building Slows on Soaring Costs for Materials and Labor
자재·인건비 급등에 미 주택 건설 크게 위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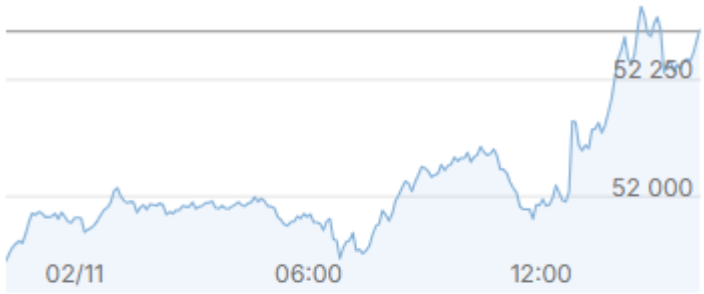
- 건설 원가 폭등의 여파로 미 주택 건설업체들이 신규 사업들을 축소하고 있다.
- 이란전, 관세 인상, 인공지능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건자재와 인건비, 물류 및 창고 비용 등 주택 건설 전반의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.
- 특히 알루미늄에 부과된 50%의 관세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외장재 등의 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. 여기에 디젤 유가 폭등으로 목재·콘크리트 등 운송비 부담마저 커지면서 도·소매 업계의 공급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.

기사

[KMI 공급망 브리핑]

- 이란이 7년 만에 부착식 기뢰(림펫 마인) 공격을 재개하며 10월 한 달간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공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미 중앙사령부(CENTCOM)가 주요 통항로의 기뢰 제거를 발표했으나 이란 혁명수비대(IRGC)는 이를 즉각 반박했다.
- 미국 밴스 부통령의 서한 전달과 카타르의 12시간 마라톤 중재를 거쳐 이란은 제재 해제 및 미군 감축 등을 조건으로 '이틀 내 부분 재개방'안을 제시했다. 다만 이란 외무장관은 조건 불이행 시 기존 강경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.
- 호르무즈 교란 여파로 서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비료 수출이 70% 이상 급감하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가속화되고 있다.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2,342.30	+571.2	+1.10%
US 500	7,624.40	+44.5	+0.59%
US Tech 100	28,505.00	+120.2	+0.42%
Dow Jones	52,326.07	+555.76	+1.07%
S&P 500	7,624.35	+44.28	+0.58%
S&P 500 VIX	18.91	-0.51	-2.63%
Dollar Index	101.543	-0.202	-0.20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30/32	5.255	-0.055
10-Year Note	4.625	4/32	4.886	-0.048
7-Year Note	4.875	3/32	4.773	-0.045
5-Year Note	4.75	2/32	4.690	-0.037
3-Year Note	4.875	1/32	4.639	-0.026
2-Year Note	4.625	0/32	4.581	-0.017
1-Year Bill	0	0/32	4.375	-0.005
6-Month Bill	0	0/32	4.279	0.004
3-Month Bill	0	1/32	4.105	0.020
1-Month Bill	0	0/32	3.971	0.000

미국 USD	유럽 EUR	일본 JPY	중국 CNY	유로/달러	달러인덱스
1,334.20	1,487.70	848.05	200.56	1.1174	102.03
-6.30 (0.47%)	-11.58 (0.77%)	-1.90 (0.22%)	-0.79 (0.39%)	+0.0021 (0.19%)	0.00 (0.00%)
10. 31. 00:22 ● 실시간	10. 31. 00:22 ● 실시간	10. 31. 00:22 ● 실시간	10. 31. 00:22 ● 실시간	10. 29.	10. 30. 11:13 ● 10분 지연

환전고시환율 | 국제시장환율

미국 USD

1
1 달러

대한민국 KRW

1,334.20
1,334.20 원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